

Case Report

산후질환에 관한 임상보고

구진숙^{1#}, 이영준², 서부일^{3*}

^{1#}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약자원학과, ^{2,3*}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Clinical Report of Various Postpartum Symptoms

Jin Suk Koo^{1#}, Young Jun Lee², Bu Il Seo^{3*}

¹Dept. of Bioresource Sciences, Andong National Univ, Andong, Republic of Korea
^{2,3}Dept. of Korean Medicine, Daegu Hanny Univ, Daegu, Republic of Korea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rious postpartum symptoms and the relevant factors. So it can provide fundamental data about postpartum health care. In conclusion, we can prevent and manage the postpartum disease by using this data.

Methods: The subject of the present study was 94 women (63 women who completed vaginal delivery and 31 women who delivered by cesarean section) who completed labor between November 1, 2013 and January 31, 2016, at the clinic of OB&GYN. They have been taking good care of their health at postpartum clinic in Andong Woori Women Hospital. We investigated the various symptoms and situation which occurred from the moment of hospital to postnatal admission health care period, and Korean medical doctor examined the patients through the four examination methods. We classified the symptoms by maternal age, the frequency of maternal childbirth, the method of delivery, the delivery season, the term of pregnancy, the body weight of infant, the weight change of mother and the way of feeding.

Results: There were no remarkable correlation in the frequency of symptoms according to maternal age, the way of delivery, the delivery season, the change of weight before and after of delivery, gestational weeks at delivery, the manner of feeding and the body weight of infants except for the frequency of maternal childbirth.

Conclusion: The symptoms of hemorrhoids, the feeling of coldness and chilliness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frequency of maternal childbirth. Other circumstances, there was no relationship with symptoms of postpartum.

Key Words : *postpartum symptoms, symptoms of hemorrhoids, the feeling of coldness and chilliness*

서론

최근 급격한 출산을 저하와 더불어 산후 조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산후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한방진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1,2)}. 분만 후 생식기를 포함한 산모의 신체는 정상적인 비임신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산욕이라 하며 산

욕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분만 종료 후 6-8주의 기간에 해당한다³⁻⁶⁾. 이 시기에는 산욕의 복고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産婦의 氣血이 未充한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데 분만과 산욕에 관련된 질병을 산후병이라 한다⁷⁾.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산후부종이나 관절의 통증 등이 있다.

산후에는 百節이 開張하고 血脈이 流散하므로 經絡과 分肉之間에 惡血이나 風寒邪가 留滯하기 쉬우

• Received : 6 September 2016 • Revised : 8 February 2017 • Accepted : 8 February 2017
• Correspondence to : 서부일(Bu Il Seo)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Tel : +82-53-819-1876, Fax : +82-53-819-1850, E-mail : seojangsan@naver.com

며 이것이 累日不散하여 骨節이 不利하고 筋脈이 急引하여 全身의 筋脈과 骨節에 疼痛을 發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산후병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산후풍에 해당하는 것이다⁴⁾. 산후의 일반적인 특징은 多虛, 多瘀한 데 있으며 산후병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한대 장중경의 《金櫃要略》⁸⁾에 이미 “婦人產後病脈證治”의 기술이 있다. 또 產後危症을 “三沖”, “三急”, “三病” 등으로 파악하였는데 “產後三沖”은 敗血相沖, 沖心, 沖肺, 沖胃를 말하며 《張氏醫通》⁹⁾에 “沖心者十難救一, 沖胃者五死五生, 沖肺者十全一二”라 하였다. “產後三急”은 嘔吐, 盜汗, 泄瀉이며 “三者并見必危”라 하여 산후에 이 세 가지 병을 앓게 되면 진액의 손상이 심해져 산후에 진액이 부족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陰血이 暴奪하고 이로 인해 陽氣易脫하게 된다. “產後三病”은 產後病瘵, 鬱冒, 大便難의 세 가지를 말하며 이 三種의 산후병은 모두 亡血傷津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¹⁰⁾.

산후병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지만 오늘날 시대적 흐름의 변화로 산후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지며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산후보양 및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한방 치료를 받는 산모들의 인식변화가 올 것이라 본다.

이에 저자는 산후질환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산후질환 관련인자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여 임상적 관찰 및 조사 분석을 통하여 몇 가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조사대상, 조사 및 분석방법

1. 調査對象

본 조사는 2013년 11월에서 2016년 1월 사이의 기간 중에 안동 여성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동병원 산후조리원에서 조리 중인 산모들 중, 출산 관련 상황 및 산후 제반 증상에 대해 설문 조사 후 진맥이 가능하였던 총 94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63명은 정상분만법으로 분만한 산모였고 31명은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산모였다. 전체 산모

중에 쌍둥이를 분만한 산모는 제외시켰다.

2. 照査 및 分析方法

- (1) 본 조사는 전체 산모의 임신 전후 상황, 분만 상황, 아기체중 및 산후 제반 증상에 대하여 설문지 작업을 실시한 후 다시 사진을 통한 진찰을 통하여 작성되었다. 그 문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별표 1).
- (2) 본 조사는 산후 3일에서 15일 이내에 시행되었다.
 - ① 정상 분만 산모는 산후 3~4일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였다.
 - ②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산모는 산후 6~7일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다.
- (3) 전체 산모에 대해 산후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를 조사하였다.
 - ① 각각의 산후 제반 증상에 대해 설문지에 체크를 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 ② 설문지의 작성이 미흡한 경우에는 진맥을 하면서 설문지의 증상을 기반으로 한 문진을 통하여 체크를 하였다.
 - ③ 만약 이전부터 있었던 증상인 경우에는 이전보다 증상이 심해진 경우에만 체크를 하도록 하였다.
- (4) 전체 산모에 대한 산후 제반 증상을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5) 전체 산모에 대한 산후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를 산모의 연령에 따라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 이상의 6개 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6) 전체 산모에 대한 산후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를 산모의 분만빈도에 따라 초산부, 2nd-경산부, 3rd-경산부, 4th-경산부의 4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7) 전체 산모에 대한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를 산모의 분만방식에 따라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2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8) 전체 산모에 대한 산후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를

분만계절에 따라 12~2월, 3~5월, 6~8월, 9~11월의 4개 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9) 전체 산모에 대한 산후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를 임신전과 출산후 체중변화에 따라 체중변화가 5kg이하, 6~10kg, 11~15kg, 16kg 이상인 경우의 4개 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10) 전체 산모에 대한 산후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를 분만주수에 따라 36주 미만, 36~37주미만, 37~38주 미만, 38~39주 미만, 40주 이상의 5개 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11) 전체 산모에 대한 산후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를 수유방법에 따라 모유, 분유, 혼합수유의 3개 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12) 전체 산모에 대한 산후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를 영아출생체중에 따라 2.5kg미만, 2.5~3kg미만, 3~3.5kg 미만, 3.5~4kg 미만, 4kg 이상의 5개 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별표 1】 산후 제반 증상에 대한 문진표

이름/ 나이
 분만력/ 아기체중/ 분만주수/ 분만방법/ 수유방법
 <산후 제반 증상>

- A. 하복부 통증 (아랫배가 주기적으로 아프다. 뻣근하게 아프다)
- B. 오로 (분만 후 배출되는 자궁내 출혈, 분비물 등)
- C. 회음부/제왕절개 부위의 통증
- D. 유방통 (젖이 불면서 느껴지는 통증)
- E. 치질
- F. 부종 (다리가 붓는다. 얼굴이 푸석푸석하다. 손발이 뻣뻣하다)
- G. 소변보는 것이 어렵다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보려해도 나오지 않는다)
/소변을 자주 보고 싶다 (조금씩 자주 나온다. 소변 볼 때 뻣근하게 아프다)
- H. 대변보는 것이 어렵다 (매일 보지만 단단해서 힘들다. 며칠에 한번씩 본다)

/대변이 자주 나온다 (대변이 무르면서 자주 본다. 배가 찌르르 아프면서 설사를 한다)

- I. 관절통 (어깨, 손목, 손가락)
- J. 요통 (허리가 불편하고 빠근하다)
- K. 한기가 들고 몸이 시리다
- L. 몸에 열감이 있다
- M. 감기증상 (목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기침 가래 콧물이 난다)
- N. 땀이 너무 많이 흐른다
- O. 어지럽다
- P.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불안하다
- Q. 이유 없이 우울하고 힘이 없다

3. 통계분석 방법

모든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각 변수의 범주 수준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hi-square test를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earson's chi-square test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Fisher's exact test로 보완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package(ver. 14.0)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5%의 유의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 과

1. 산후 제반 증상에 대한 개별적 분류

전체 94명의 산모에 대한 산후 제반 증상을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B는 89%로 가장 높았고 I가 66%, F 64%, J 57%, D 54%, N 53%로써 비교적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었다(Fig. 1).

2. 산모의 연령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

전체 산모의 연령을 25세 이하, 26~30세, 31~35세, 36~40세, 41세 이상의 5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출산연령은 31~35세 사이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26~30세 14명, 36~40세 13명, 25세 이하 8명, 4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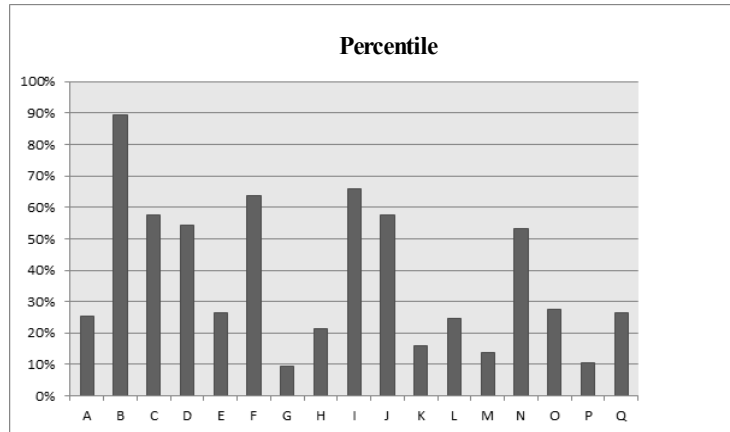


Fig. 1. The distribution of postpartum symptoms on the whole 94 women

Table 1. The Variance Analysis of Postpartum Symptoms Depending on Maternal Age

Symptom	Age	under 25 years		26~30 years old		31~35 years old		36~40 years old		over 41 years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A.		4	50.0%	2	14.3%	16	28.1%	1	7.7%	1	50.0%
B.		6	75.0%	11	78.6%	55	96.5%	10	76.9%	2	100.0%
C.		4	50.0%	11	78.6%	33	57.9%	6	46.2%	0	0.0%
D.		5	62.5%	8	57.1%	33	57.9%	5	38.5%	0	0.0%
E.		2	25.0%	2	14.3%	17	29.8%	3	23.1%	1	50.0%
F.		3	37.5%	9	64.3%	38	66.7%	8	61.5%	2	100.0%
G.		0	0.0%	0	0.0%	8	14.0%	1	7.7%	0	0.0%
H.		2	25.0%	1	7.1%	14	24.6%	3	23.1%	0	0.0%
I.		4	50.0%	10	71.4%	38	66.7%	8	61.5%	2	100.0%
J.		5	62.5%	9	64.3%	34	59.6%	4	30.8%	2	100.0%
K.		1	12.5%	1	7.1%	13	22.8%	0	0.0%	0	0.0%
L.		3	37.5%	1	7.1%	16	28.1%	2	15.4%	1	50.0%
M.		1	12.5%	3	21.4%	6	10.5%	3	23.1%	0	0.0%
N.		6	75.0%	7	50.0%	33	57.9%	4	30.8%	0	0.0%
O.		3	37.5%	3	21.4%	16	28.1%	3	23.1%	1	50.0%
P.		1	12.5%	3	21.4%	5	8.8%	1	7.7%	0	0.0%
Q.		1	12.5%	4	28.6%	19	33.3%	1	7.7%	0	0.0%

이상 2명 순이었다. 각각 해당 연령의 제반 증상 발생빈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출산빈도가 가장 높았던 31~35세 사이 출산여성에서는 B 96%, F,I 67%, J 60%, C,D,N 58%순으로 나타났으며 26~30세 출산인 경우에는 B,C 79%, I 71%, F,J 64%, D 57%, N 50%였으며 36~40세 출산인 경우에는 B 77%, F,I 62%, C 46% J,N 31%로

나타났다.

산후후유증은 36~40세 출산인 경우 가장 적게 나타났다으나 통계자료 상 산모의 연령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74.792, p=0.267$).

3. 산모의 분만빈도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

전체 산모를 분만빈도에 따라 초산부, 2nd-경산부, 3rd-경산부, 4th-경산부의 3개 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산후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초산부 5명, 2nd-경산부 37명, 3rd-경산부 6명, 4th-경산부 1명이었으며 초산부의 경우 B 88%, I 62%, C 60%, F 54%, D,J,N 52% 의 순으로 나타났고 2nd-경산부의 경우 B 87%, F 72%, I 67%, J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분만빈도에 따른 산후 증상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chi^2=86.771$, $p=0.001$), 증상 중 E “치질”(χ^2 test; $p=0.014$, χ^2 trend test; $p=0.014$)과 K “한기가 들고 몸이 시리다.”(χ^2 test; $p=0.022$, χ^2 trend test; $p=0.007$)는 증상이 분만횟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산모의 분만방식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

전체 산모를 분만방식에 따라 정상분만과 제왕절개의 2개 군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산후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 및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자연분만 63명 제왕절개 31명이었으며 자연분만의 경우 B 90%, I 65%, F 61%, D 55%, C,J 52%로 나타났으며 제왕절개의 경우 B 89%, I 67%, F 65%, C,J 60%, N 57%, D 54%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 상 분만방식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9.734$, $p=0.914$).

5. 분만계절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

전체 산모를 분만계절에 따라 12~2월, 3~5월, 6~8월, 9~11월 출산의 4개 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산후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12~2월 출산한 경우 38명, 9~11월 32명, 3~5월 14명, 6~8월 10명으로 나타났다.

12~2월 출산한 산모의 경우 B 92%, I 71%, F 63%, C,J 58%, D 55%로 나타났으며, 9~11월 출산인 경우 B 88%, I 72%, C 69%, J 63%, F,N 59%, D 53%로 나타났고, 3~5월 출산인 경우 B 100%, F

Table 2. The Variance Analysis of Postpartum Symptoms Depending on the Frequency of Maternal Childbirth

Symptom	1 st delivery		2 nd delivery		3 rd delivery		4 th delivery	
	freq.	%	freq.	%	freq.	%	freq.	%
A.	12	24.0%	9	24.3%	2	33.3%	1	100.0%
B.	44	88.0%	34	91.9%	5	83.3%	1	100.0%
C.	30	60.0%	19	51.4%	5	83.3%	0	0.0%
D.	26	52.0%	19	51.4%	6	100.0%	0	0.0%
E.	8	16.0%	13	35.1%	4	66.7%	0	0.0%
F.	27	54.0%	28	75.7%	4	66.7%	1	100.0%
G.	5	10.0%	2	5.4%	1	16.7%	1	100.0%
H.	14	28.0%	4	10.8%	1	16.7%	1	100.0%
I.	31	62.0%	26	70.3%	4	66.7%	1	100.0%
J.	26	52.0%	24	64.9%	3	50.0%	1	100.0%
K.	4	8.0%	8	21.6%	2	33.3%	1	100.0%
L.	16	32.0%	7	18.9%	0	0.0%	0	0.0%
M.	6	12.0%	4	10.8%	2	33.3%	1	100.0%
N.	26	52.0%	18	48.6%	5	83.3%	1	100.0%
O.	12	24.0%	11	29.7%	2	33.3%	1	100.0%
P.	5	10.0%	3	8.1%	2	33.3%	0	0.0%
Q.	11	22.0%	11	29.7%	2	33.3%	1	100.0%

Table 3. The Variance Analysis of Postpartum Symptoms Depending on the Delivery Methods of Pregnant Women

Symptom	Delivery method	normal delivery		cesarean delivery	
		freq.	%	freq.	%
A.		14	22.2%	10	32.3%
B.		56	88.9%	28	90.3%
C.		38	60.3%	16	51.6%
D.		34	54.0%	17	54.8%
E.		20	31.7%	5	16.1%
F.		41	65.1%	19	61.3%
G.		6	9.5%	3	9.7%
H.		15	23.8%	5	16.1%
I.		42	66.7%	20	64.5%
J.		38	60.3%	16	51.6%
K.		11	17.5%	4	12.9%
L.		15	23.8%	8	25.8%
M.		10	15.9%	3	9.7%
N.		36	57.1%	14	45.2%
O.		18	28.6%	8	25.8%
P.		5	7.9%	5	16.1%
Q.		17	27.0%	8	25.8%

79%, N 64%, J 50%, 6~8월 출산인 경우 B,D,I 70%, F 60%, C,J,N 50%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 상 분만계절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52.150, p=0.429$).

6. 산모체중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

전체 산모를 임신 전과 출산 후 체중변화에 따라 체중변화가 5kg이하, 6~10kg, 11~15kg, 16kg 이상인 경우의 4개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산후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체중 변화가 6~10kg인 경우 46명, 11~15kg 21명, 5kg이하인 경우 18명, 16kg 이상인 경우 9명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체중변화가 6~10kg인 경우 B 91%, J 70%, F,I 65%, D 57%, C 52%, N 50% 순으로 나타났으며 11~15kg 인 경우 B 86%, C,I 71%, F 57%, N 52% 순으로 나타났고 5kg이하인 경우 B 94%, F,I 67%, C 61%, N 56%, D,J 50%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산 전-후 산모 체중의 변화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45.741, p=0.628$).

7. 분만주수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

전체 산모를 분만주수에 따라 38주 이하, 38주 1일~39주, 39주 1일~40주, 40주 초과인 4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산후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38주1일~39주 30명, 39주1일~40주 27명, 40주 초과 23명, 38주 이하 14명으로 나타났다.

분만주수 38주1일~39주인 경우 B 93%, I 77%, F 67%, J 63%, C 60%, N 57%, D 53%순으로 나타났으며, 분만주수 39주1일~40주인 경우 B 89%, F 70%, J 67%, I 59%, C 56%, D,N 52% 순으로 나타났고, 분만주수 40주 초과인 경우에는 B 83%, F,N 61%, D 57%, C,I 52%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모 분만주수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40.713, p=0.848$).

8. 수유방법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

전체 산모를 수유방법에 따라 모유수유, 혼합수유, 분유수유하는 경우의 3개 군으로 분류하여 각각

Table 4. The Variance Analysis of Postpartum Symptoms Depending on the Delivery Season

Symptom	Season	Dec.~Feb.		March~May		June~Aug.		Sep.~Nov.	
		freq.	%	freq.	%	freq.	%	freq.	%
A.		9	23.7%	3	21.4%	4	40.0%	8	25.0%
B.		35	92.1%	14	100.0%	7	70.0%	28	87.5%
C.		22	57.9%	5	35.7%	5	50.0%	22	68.8%
D.		21	55.3%	6	42.9%	7	70.0%	17	53.1%
E.		11	28.9%	4	28.6%	1	10.0%	9	28.1%
F.		24	63.2%	11	78.6%	6	60.0%	19	59.4%
G.		2	5.3%	1	7.1%	1	10.0%	5	15.6%
H.		8	21.1%	1	7.1%	2	20.0%	9	28.1%
I.		27	71.1%	5	35.7%	7	70.0%	23	71.9%
J.		22	57.9%	7	50.0%	5	50.0%	20	62.5%
K.		8	21.1%	0	0.0%	1	10.0%	6	18.8%
L.		11	28.9%	4	28.6%	2	20.0%	6	18.8%
M.		5	13.2%	2	14.3%	1	10.0%	5	15.6%
N.		17	44.7%	9	64.3%	5	50.0%	19	59.4%
O.		9	23.7%	2	14.3%	2	20.0%	13	40.6%
P.		3	7.9%	1	7.1%	2	20.0%	4	12.5%
Q.		9	23.7%	1	7.1%	1	10.0%	14	43.8%

Table 5. The Variance Analysis of Postpartum Symptoms Depending on the Changes in Maternal Body Weight

Symptom	Weight change	5kg or less		6~10kg		11~15kg		16kg or more	
		freq.	%	freq.	%	freq.	%	freq.	%
A.		3	16.7%	14	30.4%	3	15.0%	3	33.3%
B.		17	94.4%	42	91.3%	17	85.0%	7	77.8%
C.		11	61.1%	24	52.2%	14	70.0%	4	44.4%
D.		9	50.0%	26	56.5%	9	45.0%	6	66.7%
E.		4	22.2%	15	32.6%	4	20.0%	2	22.2%
F.		12	66.7%	30	65.2%	11	55.0%	6	66.7%
G.		4	22.2%	2	4.3%	3	15.0%	0	0.0%
H.		3	16.7%	9	19.6%	5	25.0%	2	22.2%
I.		12	66.7%	30	65.2%	14	70.0%	5	55.6%
J.		9	50.0%	32	69.6%	7	35.0%	5	55.6%
K.		3	16.7%	9	19.6%	2	10.0%	1	11.1%
L.		6	33.3%	10	21.7%	6	30.0%	0	0.0%
M.		1	5.6%	10	21.7%	1	5.0%	1	11.1%
N.		10	55.6%	23	50.0%	10	50.0%	6	66.7%
O.		4	22.2%	14	30.4%	7	35.0%	1	11.1%
P.		1	5.6%	8	17.4%	1	5.0%	0	0.0%
Q.		7	38.9%	12	26.1%	4	20.0%	2	22.2%

에 대해 산후의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 차이를 살펴 보았다. 모유수유 72명, 혼합수유 18명, 분유수유 4 명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하는 경우 B 86%, I 67%, F 61%, J

60%, C 58%, D 54%로 나타났으며 혼합수유의 경 우 B 100%, I 72%, F, N 67%, C, D 56%, J 50%로 나타났고 분유수유의 경우 B, F 100%, N 75%, C, D, J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Variance Analysis of Postpartum Symptoms Depending on the Maternal Childbirth Weeks

Symptom	Period	below 38weeks		38~39weeks		39~40 weeks		over 40 weeks	
		freq.	%	freq.	%	freq.	%	freq.	%
A.		3	21.4%	10	33.3%	5	18.5%	6	26.1%
B.		13	92.9%	28	93.3%	24	88.9%	19	82.6%
C.		9	64.3%	18	60.0%	15	55.6%	12	52.2%
D.		8	57.1%	16	53.3%	14	51.9%	13	56.5%
E.		4	28.6%	7	23.3%	6	22.2%	8	34.8%
F.		7	50.0%	20	66.7%	19	70.4%	14	60.9%
G.		2	14.3%	3	10.0%	4	14.8%	0	0.0%
H.		2	14.3%	6	20.0%	7	25.9%	5	21.7%
I.		11	78.6%	23	76.7%	16	59.3%	12	52.2%
J.		7	50.0%	19	63.3%	18	66.7%	10	43.5%
K.		2	14.3%	6	20.0%	1	3.7%	6	26.1%
L.		2	14.3%	9	30.0%	5	18.5%	7	30.4%
M.		2	14.3%	3	10.0%	5	18.5%	3	13.0%
N.		5	35.7%	17	56.7%	14	51.9%	14	60.9%
O.		4	28.6%	12	40.0%	5	18.5%	5	21.7%
P.		2	14.3%	3	10.0%	4	14.8%	1	4.3%
Q.		3	21.4%	11	36.7%	8	29.6%	3	13.0%

Table 7. The Variance Analysis of Postpartum Symptoms Depending on the Feeding Methods

Symptom	Feeding method	breast feeding		formular feeding		mixed feeding	
		freq.	%	freq.	%	freq.	%
A.		21	29.2%	0	0.0%	3	16.7%
B.		62	86.1%	4	100.0%	18	100.0%
C.		42	58.3%	2	50.0%	10	55.6%
D.		39	54.2%	2	50.0%	10	55.6%
E.		20	27.8%	1	25.0%	4	22.2%
F.		44	61.1%	4	100.0%	12	66.7%
G.		8	11.1%	0	0.0%	1	5.6%
H.		17	23.6%	0	0.0%	3	16.7%
I.		48	66.7%	1	25.0%	13	72.2%
J.		43	59.7%	2	50.0%	9	50.0%
K.		12	16.7%	0	0.0%	3	16.7%
L.		18	25.0%	0	0.0%	5	27.8%
M.		9	12.5%	0	0.0%	4	22.2%
N.		35	48.6%	3	75.0%	12	66.7%
O.		17	23.6%	1	25.0%	8	44.4%
P.		6	8.3%	1	25.0%	3	16.7%
Q.		20	27.8%	0	0.0%	5	27.8%

하지만 수유방법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28.793$, $p=0.721$).

9. 영아출생체중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

전체 산모를 출산영아의 체중에 따라 3kg이하, 3초과~3.5kg이하, 3.5초과~4kg이하, 4kg초과의 4개

Table 8. The Variance Analysis of Postpartum Symptoms Depending on the Babies` Body Weight

Symptom	Baby weight	3kg or less		3~3.5kg		3.5~4k		4kg or more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A.		9	34.6%	11	23.9%	4	20.0%	0	0.0%
B.		24	92.3%	41	89.1%	17	85.0%	2	100.0%
C.		15	57.7%	24	52.2%	14	70.0%	1	50.0%
D.		15	57.7%	24	52.2%	12	60.0%	0	0.0%
E.		9	34.6%	9	19.6%	7	35.0%	0	0.0%
F.		17	65.4%	31	67.4%	11	55.0%	1	50.0%
G.		2	7.7%	6	13.0%	1	5.0%	0	0.0%
H.		6	23.1%	10	21.7%	4	20.0%	0	0.0%
I.		19	73.1%	31	67.4%	12	60.0%	0	0.0%
J.		15	57.7%	24	52.2%	14	70.0%	1	50.0%
K.		4	15.4%	6	13.0%	5	25.0%	0	0.0%
L.		10	38.5%	6	13.0%	7	35.0%	0	0.0%
M.		3	11.5%	5	10.9%	5	25.0%	0	0.0%
N.		12	46.2%	26	56.5%	11	55.0%	1	50.0%
O.		5	19.2%	14	30.4%	7	35.0%	0	0.0%
P.		4	15.4%	3	6.5%	3	15.0%	0	0.0%
Q.		4	15.4%	14	30.4%	7	35.0%	0	0.0%

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산후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3초과~3.5kg이하 46명, 3kg이하 26명, 3.5초과~4kg이하 20명, 4kg초과 2명으로 나타났다. 3초과~3.5kg이하인 경우 B 89%, F,I 67%, N 57%, C,D,J 52%로 나타났으며 3kg이하인 경우 92%, I 73%, F 65%, C,D,J 58%로 나타났고 3.5초과~4kg이하인 경우 B 85%, C,J 70%, D,I 60%, F,N 55%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생 시 체중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42.425$, $p=0.798$).

고 찰

오늘날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근 20년 동안 현저한 출산율 감소를 지속되고 있다¹¹⁾. 특히 출산 후 육아의 부담 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관리, 미용적인 측면의 회복을 중시하는 현대풍조에서는 산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

이 발달하고 핵가족화되면서 산후섭생에 대한 관념이 점점 약해지고 산모의 직장활동 상 조기에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산후질환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¹²⁾.

산후에는 百節이 開張하고 血脈이 流散하므로 經絡과 分肉之間에 惡血이나 風寒邪가 流滯하기 쉬우며 이것이 累日不散하여 骨節이 不利하고 筋脈이 急引하여 全身의 筋脈과 骨節이 疼痛을 發할 수 있다⁴⁾. 그러므로 산후 즉 분만 종료 후 6~8주 간은 產褥期라 하여 임신과 분만의 상황에서 벗어나 임신전의 상태로 복구되는 과정으로 보고 각별히 조리와 섭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다¹³⁾.

產褥의 復舊가 불안정하고 산모의 氣血이 未充한 시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데 분만과 산육에 관련된 질병을 산후병이라 한다⁷⁾. 민간에서 흔히 통용되어지고 있는 산후풍이란 명칭은 역대 한방문헌에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는데 부인이 아기를 출산한 뒤 조리를 잘못하여 얻은 병, 특히 류머티즘성 관절질환 및 근육통 뿐만 아니라 부인에게만 볼 수 있는 갱년기에 나타나는 心肝氣鬱의 자율신경장

에중후군과 腎虛로 인한 관절질환을 광범위하게 포함한 질환이다¹⁴⁾. 문헌에는 産後身痛, 産後偏身疼痛, 産後偏身肢節走痛, 産後關節痛 등의 질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산후풍의 증상은 산후에 나타나는 제반 증상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후풍에 대한 원인을 문헌적으로 살펴보면 陳¹⁵⁻¹⁷⁾ 등은 “氣虛로 인하여 瘀血이 骨節에 流注하여 發한다”하였고 王^{18,19)} 등은 “産後에 百節이 開脹하고 血脈이 流散한데 氣弱하면 經絡分肉之間에 瘀血이 留滯하여 累日不散하여 發한다”하였으며 李²⁰⁻²²⁾ 등은 “産後에 氣血이 主動하여 升降이 失常되어 關節에 留滯하여 발생한다”하였다. 그리고 龔²³⁾은 “血虛하여 不能營養하여 나타난다”고 하였고 吳²⁴⁾는 “去血過多하여 營血이 不足하거나 혹은 風寒에 外感되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程²⁰⁾은 “産後에 百節이 開脹하고 血脈이 空虛하여 不能營養하거나 敗血이 乘虛하여 經絡에 流注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요약하면 氣弱, 血滯, 血瘀, 血虛에 外感風寒을 挾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산후에는 산모의 체질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 증상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증상들에 대한 원인과 치료법을 연구하고자 산후풍을 포함한 산후의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 및 정황을 3년간 94명의 산모들을 진찰 및 문진하여 살펴보았다.

산후 제반 증상을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보았을 때 B는 89%로 가장 높았고 I가 66%, F 64%, J 57%, D 54%, N 53%로써 비교적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었다.

산모의 연령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출산연령은 31~35세 사이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26~30세 14명, 36~40세 13명, 25세 이하 8명, 41세 이상 2명 순이었다. 각각 해당 연령의 제반 증상 발생빈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출산빈도가 가장 높았던 31~35세 사이 출산여성에서는 B 96%, F,I 67%, J 60%, C,D,N 58%순으로 나타났으며 26~30세 출산인 경우에는 B,C 79%, I 71%, F,J 64%, D 57%, N 50%였으며 36~40세 출산인 경우

에는 B 77%, F,I 62%, C 46%, J,N 31%로 나타났다. 산후후유증은 36~40세 출산인 경우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분석 상 산모의 연령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분만빈도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 산모를 분만빈도에 따라 초산부, 2nd-경산부, 3rd-경산부 4th-경산부의 4개 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산후 제반 증상의 발생빈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초산부 50%, 2nd-경산부 39%, 3rd-경산부 6%, 4th-경산부 1% 였으며 초산부의 경우 B 88%, I 62%, C 60%, F 54%, D,J,N 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nd-경산부의 경우 B 87%, F 72%, I 67%, J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상 산모의 분만빈도에 따른 산후 증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86.771$, $p=0.001$), 증상 중 ‘치질’(χ^2 test; $p=0.014$, χ^2 trend test; $p=0.014$)과 ‘한기가 들고 몸이 시리다’(χ^2 test; $p=0.022$, χ^2 trend test; $p=0.007$)는 증상이 분만횟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모의 분만방식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연분만 63명 제왕절개 31명이었으며 자연분만의 경우 B 90%, I 65%, F 61%, D 55%, C,J 52%로 나타났으며 제왕절개의 경우 B 89%, I 67%, F 65%, C,J 60%, N 57%, D 54%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분석 상 분만방식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계절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12~2월 출산한 경우 38명, 9~11월 32명, 3~5월 14명, 6~8월 10명으로 나타났으며 12~2월 출산한 산모의 경우 B 92%, I 71%, F 63%, C,J 58%, D 55%로 나타났으며 9~11월 출산인 경우 B 88%, I 72%, C 69%, J 63%, F,N 59%, D 53%로 나타났고 3~5월 출산인 경우 B 100%, F 79%, N 64%, J 50% 6~8월 출산인 경우 B,D,I 70%, F 60%, C,J,N 50%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분석 상 분만계절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체중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임신전과 출산후 체중변화가 6~10kg인 경우

46명, 11~15kg 21명, 5kg이하인 경우 18명, 16kg 이상인 경우 9명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체중변화가 6~10kg인 경우 B 91%, J 70%, F,I 65%, D 57%, C 52%, N 50% 순으로 나타났으며 11~15kg인 경우 B 86%, C,I 71%, F 57%, N 52%순으로 나타났으며 5kg 이하인 경우 B 94%, F,I 67%, C 61%, N 56%, D,J 50%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분석 상 출산 전-후 산모 체중의 변화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주수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38주1일~39주 30명, 39주1일~40주 27명, 40주 초과 23명, 38주 이하 14명으로 나타났다. 분만주수 38주1일~39주인 경우 B 93%, I 77%, F 67%, J 63%, C 60%, N 57%, D 53%순으로 나타났으며, 분만주수 39주1일~40주인 경우 B 89%, F 70%, J 67%, I 59%, C 56%, D,N 52% 순으로 나타났고, 분만주수 40주 초과인 경우에는 B 83%, F,N 61%, D 57%, C,I 52%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분석 상 산모 분만주수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유방법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유수유 72명, 혼합수유 18명, 분유수유 4명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하는 경우 B 86%, I 67%, F 61%, J 60%, C 58%, D 54%로 나타났으며 혼합수유의 경우 B 100%, I 72%, F,N 67%, C,D 56%, J 50%로 나타났고 분유수유의 경우 B,F 100%, N 75%, C,D,J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분석 상 수유방법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출생체중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3초과~3.5kg이하 46명, 3kg이하 26명, 3.5초과~4kg 이하 20명, 4kg초과 2명으로 나타났다. 3초과~3.5kg 이하인 경우 B 89%, F,I 67%, N 57%, C,D,J 52%로 나타났으며 3kg이하인 경우 92%, I 73%, F 65%, C,D,J 58%로 나타났고 3.5초과~4kg이하인 경우 B 85%, C,J 70%, D,I 60%, F,N 55%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분석 상 출생 시 체중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산후 제반 증상은 산모의 연령, 분만방식, 분만계절, 출산 전 후 산모 체중의 변화, 분만주수, 수유방법, 출산 시 영아의 체중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산모의 분만빈도에 따른 산후 증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상 중 ‘치질’과 ‘한기가 들고 몸이 시리다’는 증상이 분만횟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산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치질’과 ‘한기가 들고 몸이 시리다’는 증상이 분만횟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외에는 특정한 환경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문헌적으로 제시된 산모의 氣弱, 血滯, 血瘀, 血虛 등의 체질적 요인이 더 크게 관여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향후 증례를 확장시켜 지속적인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

본 조사는 2013년 11월에서 2016년 1월 사이의 기간 중에 안동 여성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동병원 산후조리원에서 조리 중인 산모들 중, 출산 관련 상황 및 산후 제반 증상에 대해 설문 조사 후 진맥이 가능하였던 총 94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63명은 정상분만법으로 분만한 산모였고 31명은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산모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산후 제반 증상을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보았을 때 B는 89%로 가장 높았고 I가 66%, F 64%, J 57%, D 54%, N 53%로써 비교적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었다.
2. 출산연령은 31~35세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산모의 연령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산모의 분만빈도에 따른 산후 증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상 중 ‘치질’과 ‘한기가

들고 몸이 시리다'는 증상은 분만횟수가 증가할 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분만방식에 있어서는 자연분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분만방식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분만계절에 있어서는 동절기나 가을에 분만하는 경우가 많았고 분만계절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임신 전과 출산 후의 산모의 체중변화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6~10kg 체중이 증가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출산 전-후 산모 체중의 변화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분만주수는 38주~39주 출산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산모 분만주수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8. 수유방법에 있어서는 모유수유하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았으며 수유방법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영아출생체중은 3~3.5kg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출생 시 영아체중에 따른 산후 제반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산후 제반 증상 중 '치질'과 '한기가 들고 온몸이 시리다'는 증상은 분만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기타 증상들은 출산연령, 분만빈도, 분만방식, 분만계절, 산모의 체중 변화, 분만주수, 수유방법, 영아출생체중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안동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1. Kim HI, Lim EM. Reviewing of Outpatient of Oriental Obstetrics and Gynecology.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1997;10(2): 169-82.
2. Uom ES, Lee DN, Lim EM. Clinical Investigation for Postpartum Symptoms.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2001;14(1): 365-79.
3.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Obstetrics, Third Edition. Seoul:Book publishing Calvin. 1997:745-87. 1239-48.
4. Song BK. Oriental Gynecology. Seoul:Hanglim Publisher. 1994:270-7.
5. Luoyuankai. Shiyong zhongyi fukexue.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er. 1997:213-9.
6. Niu JZ. Xiandai zhongxiyi fukexue. Beijing: China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er. 1996: 37-8, 662-702, 707-8.
7. Oriental gynecology Compilation Committee. Oriental gynecology(2). Seoul:Jeongdam. 2001:85, 336-7.
8. Zhang ZJ. Zhongjingquanshu. Seoul: Daesung Publisher. 1989:430.
9. Zhang I. Zhangshiyitong. Beijing:Chin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ublisher. 1995:264-73.
10. Lee TK, Kim DI. Lecture note of Oriental gynecology. Gynecology medicine of Dongguk University. 2000:784-796.
11. Jang DH. Maternal age effects on birth weight and low birth weight[Master's Thesis]. Gangwon: Hallym University; 2014.
12. You DY. Clinical Studies on the General Pain after Childbirth. Symposium of the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f Taejeon university. 1997;5(2):513-22.
13. Kim SY, Lee IS. Study of the oriental medical literature for the causes of 產後風(chan hou feng).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1. Kim HI, Lim EM. Reviewing of Outpatient of Oriental Obstetrics and Gynecology. The

- 1993;6(1):117.
14. Min BH, Yoo DY. Study of the oriental medical literature for 產後風(chan hou feng). Symposium of the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f Taejeon university. 2004;13(1): 159-68.
 15. Chen ZM. Xiaozhu furenliangfang. Taibei: Jiwenshuju. 1976:1.
 16. Lou Y. Yixuegangmu(1). Seoul:Iljung publisher. 1984:396.
 17. Fu S. Fuqingzhunannuke. Tainan:Xibei publisher. 1981:175.
 18. Wang KT. Nuke zhengzhi zhunsheng. Taibei: Yiwen yinshuguan. 1975:402-3.
 19. Cheng GP. Yixuexinwu. Taibei:Dabang publisher. 1978:264.
 20. Li C. Yixuerumen. Seoul:Hanseung publisher. 1977:335.
 21. Ye G. Yetianshinuke. Seoul:Euido Korea publisher. 1978:143.
 22. Chen JN. Fukeyuchi. Taibei:Ziyou publisher. 1967:109.
 23. Gong TX. Wanbinghuichun enlargement(Ⅱ). Seoul:Haelim publishr. 1972:113.
 24. Wu Q, et al. Yizongjinjian(1). Seoul:Euido Korea publisher. 1976:197.